금주의 법구-〈보왕삼매론〉
남이 뜻대로 순종하길 바라지 말라
순종해주면 마음이 교만해지나니
맞지 않은 사람으로 숲을 삼아라.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190호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불기 2562년 · 단기 4351년 음력 2월 12일) 2018년 3월 28일 수요일



春三月 폭설로 雪國된 도량 봄으로 접어드는 춘분. 지난 3월 21일 남부지방에는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많은 눈이 내렸다. 다하지 못한 일이 있다는 듯, 겨울은 그렇게 남아 있었다. 부산 범어사에도 많은 눈이 내렸다. 시절의 도래는 우리의 소관이 아님을 자연은 다시 한 번 가르쳐 주는 듯했다. 마치 다시 한 번 알려줄 때가 됐다는 듯, 하얀 눈을 우리 어깨 위에 죽비처럼 내렸다. 사진가는 눈을 맞으며 그 겨울을, 그 봄을 카메라에 담았다. 시절 속의 우리는 그렇게 서 있었다. **부산 범어사=하성미 기자**

공의 없는 사면, 한계는 분명했다

[뉴스분석]

굴곡진 멸빈자 사면史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현재 조계종 최대관심사인 멸빈자 사면관련 종헌개정안이 중앙종회서 부결됐다.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원행)는 3월 20일 개원한 제210회 중앙종회 임시회서 종헌 개정의 건을 다뤄 지난 208회서 상정 이후 1년여 간 이월된 멸빈자 사면관련 종헌개정안을 무기명 비밀투표에 부쳤다. 투표에는 총 79명의 의원이 참여했으며, 투표결과 찬성 35표 · 반대 44표로 끝내 부결됐다. 이로써 십수 년간 지속된 조계종단의 멸빈자 사면 노력은 다시 물거품으로 돌아갔다.



제210회 중앙종회서 종헌개정안 가부를 결정하기 위해 진행된 무기명 비밀투표.

역대 멸빈자 사면 논의 과정

2003	제156회 중앙종회 종헌개정 부결(찬41/반30)
2004	제162회 중앙종회 종헌개정 부결(찬53/반21)
2004	제163회 중앙종회 종헌개정 부결(찬50/반28)
2007	종정 법전 스님 교시
2008	제176회 중앙종회 종헌개정 부결(찬24/반46)
2014	원로의장 밀운 스님 호소문 발표
2015	종정 진제 스님 교시
2017	종정 진제 스님 교시
2017	제208회 중앙종회 종헌개정안 상정
2018	종정 진제 스님 교시
2018	제210회 중앙종회 종헌개정 부결(찬35/반44)

제210회 중앙종회 임시회서
79명 투표, 찬성35 · 반대44표
집행부 기대에 못 미친 결과

서의현 前원장 의식에 영향
부칙 따른 종헌 제한 반감도
집행부 "겸허히 받아들인다"

집행부의 정치력 시험대

이번 종헌개정안 논의는 제35대 총무원장 설정 스님을 비롯한 집행부의 정치력 시험대로 평가됐다. 하지만 투표결과 찬성표가 과반수도 넘지 못한 채 종헌개정안이 부결됨에 따라 향후 집행부의 종단운영에 중앙종회가 적지 않은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올해 초부터 설정 스님은 멸빈자 사면을 통한 종단 대화합을 강조했다. 특히 최근 전국교구본사주지회의서 각 교구의 협조를 요청, 본사주지들이 이를 지지하면서 사면에 대한 긍정적인 기류가 형성되기 시작했다. 이에 집행부도 관련 계획을 알리며 멸빈자 사면 분위기를 끌어올렸으나 종회 문턱을 넘지는 못했다. 결국 종헌개정안 가결을 지지한 몇몇 종회의원들이 "부끄럽다"는 말을 남기고 회의장을 떠나는 모습도 연출됐다.

실제 임시회를 앞두고 여권 종책모임 불교광장 내부에서도 멸빈자 사면 종헌개정안에 대한 의견 통일을 이루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야권 종책모임도 지지할 명분이 부족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찬성 35표 중 10표가 비구니종회의원 표인 것을 감안할 때 제35대 집행부가 선출직 · 직능대표 의원들로부터 얻어낸 것은 고작 25표에 불과하다.

위로부터 형성된 사면여론

멸빈자 사면 논의는 10여 년 전부터 시작, 2003년 이후 수차례 중앙종회에 종헌개정안이 상정됐지만 번번이 부결됐다. 특히 2004년 3월 제162회 중앙종회서는 가결정족수에 1표 모자란 찬성 53표가 나와 아쉬움을 남겼다.

그간 이뤄진 종헌개정안 부결의 가장 큰 공통 배경은 '위로부터 형성된 사면여론'이라는 분석이 많다. 그동안 멸빈자 사면은 주로 종정 스님과 원로회의의 당부 · 호소 등으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됐다. 이 때문에 '자비문중' '대화합'이라는 표현만으로 대중을 설득하기엔 명분이 부족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오랜 시간을 들여 풀뿌리 구성원으로부터 공감대를 얻고, 점차 종단 핵심 소임자쪽으로 논의를 확산했다면 지금과는 다른 결과를 가져왔을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견해다.

물론 여기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서의현 前총무원장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다. 일각에서는 "서 前원장을 구제하기 위해 멸빈자 사면 논의가 이뤄진다"고 표현할 만큼 그에 대한 반감이 크다. 게다가 2015년 6월 재심호계원이 초심 호계원의 멸빈징계 판결을 21년 만에 뒤집어 '공권정지 3년'으로 결정하면서 파문이 일었다. 거듭된 논란에 집행부의 행정처리는 보류됐지만, 진제 스님 교시 직후 이뤄진 일이어서 '서의현 살리기' 의혹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었다.

종회의원 A스님은 "바라이죄나 재산비위를 제외하면 사면 대상자는 몇 안 된다. 결국 서의현 스님으로 사면 대상자가 좁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종회의원들 사이에서도 사면 여론이 좋지 않았다"고 종회의원들의 분위기를 전했다.

또 다른 종회의원 B스님은 "원칙적으로 사면에 동의한다고 해도 헌법에 해당하는 종헌을 부칙으로 1회만 제한하는 것에 불편함을 느끼는 의원이 많았다. 이번 결과를 두고 예상보다 찬성표가 많았다는 시각도 있을 정도"라고 토로했다.

이 같은 분위기는 설정 스님의 강력한 의지가 현실 종단 정치 한계에 부딪힌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몇몇 중진 스님들은 설정 스님이 제17대 중앙종회의원 선거 이후인 11월 종회까지 내다보며 사면 논의를 천천히 이어갈 것을 직접 조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직능대표선출위원장이 당연직 총무원장인 만큼 오랜 기간 여론을 수렴하고, 지금보다 더 나은 상황에서 종헌개정안을 다루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처럼 종헌개정안 부결로 제16대 중앙종회서는 사실상 멸빈자 사면 논의가 불가능해졌다. 오는 10월 제17대 중앙종회의원 선거가 있지만 총무원장 설정 스님이 이를 장악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따라서 앞으로 멸빈자 사면 여론에 다시 불을 지피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천태종 신임 총무원장 문덕 스님 임명

종의회, 임명동의안 만장일치 통과
4년 임기… "여론 수렴해 종단운영"



천태종 제18대 총무원장에 원로원 위원 문덕 스님〈사진〉이 임명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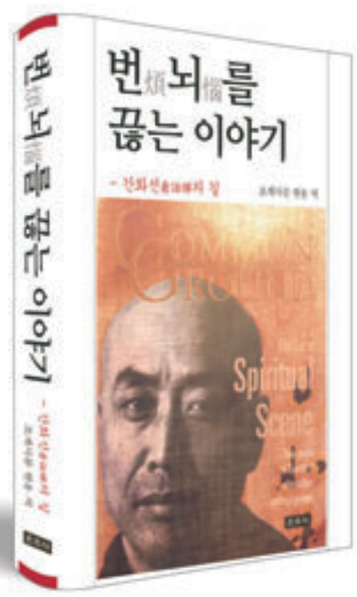
천태종 종의회(의장 도원)는 3월 20일 단양 구인사 삼보당에서 재적의원 30명 중 26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06차 정기종의회 본회의를 열고, 전날 종정 도용 스님이 신임 총무원장으로 지명한 문덕 스님 임명 동의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이에 따라 문덕 스님은 이날부터 4년간 총무원장 임기를 수행한다. 취임식은 추후 논의할 예정이다.

종의회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이 통과된 후 문덕 스님은 "여러모로 부족한 소납을 총무원장으로 지명해주신 종정예하, 임명 동의를 해주신 종의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막중한 소임을 맡게 돼 어깨가 무겁다. 대중의 여론을 수렴하고 힘을 모아 종단 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종도들의 많은 협조를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신임 총무원장 문덕 스님은 1971년 상월원각대조사를 은사로 출가, 대충대종사를 계사로 득도했다. 종정 사서, 8~15대 종의회의원, 15대 종의회의장, 종정 사서실장, 총무원 총무부장과 재무부장, 〈법화경〉 출판전문위원, 2급 법계 품수, 금강대 이사, 포항 황해사 · 울산 정광사 · 부산 광명사 등 사찰 주지를 비롯해 종단 주요 소임을 두루 역임했다. 2017년 4월 22일에는 원로원 위원에 임명된 바 있다. **김주일 기자**

번煩뇌惱를 끊는 이야기
- 간화선看話禪의 길

번뇌를 끊는다니 말이나 되는가!
번뇌를 끊으려는 그 생각이 또한 번뇌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번뇌를 끊는다고 말하고 나와야 한다.
사람 성품性品에는 본시 번뇌가 없지만 성품을 보지 못한 이는
날마다 번뇌를 보듬고 산다.
이 책은 본래 없는 것을 있다고 지키고 있는 이에게 '뜬 눈'을 갖게 할 것이다.



현응玄雄 스님
송광사 구산九山 스님 문하로 출가하고, 용화사 전강田岡 선사 문하에서 공부길을 간택받았다. 그 후 대중 선방 생활을 뒤로하고 깊은 산중 토굴에 들어가 6년간을 홀로 지냈다. 1984년 스위스 불승사에서의 초청을 계기로 유럽과 미국에서 20여 년 동안 서양인들에게 선을 지도하였다. 2005년 한국에 돌아와 서울 육조사 선원을 열고 간화선을 지도하고 있다.

조계후학 현응 저/신국판 양장/520쪽/값 25,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 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